

상주~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공구 실시설계

나. 계측기간과 계측빈도

(1) 계측빈도 고려사항

- 계측의 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, 한편 그 경우에는 계측 작업에 노력을 요하는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비탈면의 변동상황, 위험도, 계측기기의 특성이나 내구성, 현지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.
- 보통비탈면에 변동현상이 발생하여 시공중의 작업원의 안전확보가 우선되는 경우나 강우시 등에는 치밀한 빈도로 하고 공사 완료후나 대책공 시공후 등의 경우에는 빈도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- 지하수위와 같이 그 피크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피크치의 관측 누설을 막기위해 계측빈도는 밀실이 취할 필요가 있으며, 가급적 자기기록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.
- 암반붕괴나 비탈면의 활동이 호우, 융설, 지진 등의 자연요인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의 계측계획으로 설정된 계측빈도에 구애받지 않고 계측빈도를 자주 실시한다.

(2) 계측기간 고려사항

- 계측의 기간은 비탈면의 변상 규모와 그 영향도, 보전대상 구조물의 중요도, 대책공의 유무, 공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.
- 암반비탈면의 변동 상황은 강우나 융설 등의 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그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요 최적 기간으로서 1년을 통하여 계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.
- 계측개시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
 - ① 암반비탈면에 육안 확인이 되는 변상이 생긴 시기부터 개시한다.
 - ② 사전의 현지답사, 암반 조사에서 불안정 혹은 위험 비탈면으로 판단된 경우 공사 시공 전부터 개시한다.
 - ③ 대책공 시공 후부터 개시한다.
- 계측의 완료시기에 대해서, 기본적으로는 암반비탈면의 변동이 계측되지 않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 1년간 계측을 계속하고, 그 중간에 있어서도 변동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여 완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[계측항목 및 빈도]

계 측 기 기		계 측 대 상	계 측 빈 도		
			깎 기 중	1~3 개 월	3 개 월 이 후
시 공 중	지중경사계	활동면의 위치 확인과 압괴이동량	2회/주	1회/주	1회/월
	지하수위계	지하수 상태 관측과 안정성 검토	2회/주	1회/주	1회/월
	지표침하계	비탈면 지표침하 측정	2회/주	1회/주	1회/월
무선 자동화 계측 시스템	지중경사계	활동면의 위치 확인과 압괴이동량	상 시 계 측		
	지표침하계	비탈면 지표침하 측정	상 시 계 측		
	신축변위계	인장균열 발생 부근의 머리부 변위량	상 시 계 측		